

올림픽을 빛낸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

- 양궁 주현정



주현정이 12일 베이징에서 벌어진 2008 베이징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 예선 리운드중 화살을 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젠 대학 진학의 꿈 '금빛 조준'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잘 할 수 있다."

한국 여자양궁 대표팀의 만년미로 후배들을 이끌며 여자양궁 단체전 6연패의 금자탑을 쌓은 곡성출신 주현정(26·현대모비스)의 홈페이지에 씌어있는 글이다.

베이징으로 출발 한 달 전부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해낼 수 있다는 자기 암시와 자신감을 부여한 주현정은 마침내 이번 올림픽에서 광주·전남 선수로는 첫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주현정의 올림픽 금메달은 대기만성, 묵묵히 때를 기다린 기다림의 미학이었다.

주현정은 올해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면 국가대표 선발전을 8년만에 통과했다. 실업생활 8년만에 처음으로 단 태극마크. 하지만 이번엔 단 태극마크는 그 의미가 달랐다. 올림픽에 당당히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동안 변변하지 못했던 국제대회 성적으로 응어리진

'난 할 수 있다' 수시로 자기 암시 주효

실업생활 8년만에 태극마크 '대기만성'

마음을 이번 올림픽 메달로 날려버리겠다는 야심이 꿈을 거렸다.

늦깎이 국가대표팀 합류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땀을 흘렸고, 할 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올림픽에서 당당히 그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주현정은 이제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던 대학진학을 설계하고 있다.

어머니 이점례(48)씨는 "현정이가 고교 졸업 후 실업팀으로 가라고 했을 때 대학을 못가 4개월을 눈물로 지새웠다"며 "이제 올림픽 메달로 마음의 짐을 훌훌 털고 대학

진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현정은 부모님의 권유에 특별히 자신을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효녀다. 바쁜 실업팀 생활을 하면서도 설날과 11월 휴가 때는 항상 고향에 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으며 용돈을 챙겨드렸다.

이점례씨는 "현정이는 가리는 음식도 없고, 워낙 성격이 좋아 머느리감으로는 최고다.현정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사윗감으로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점례씨는 오는 28일 서울로 가서 보고 싶은 딸을 만난다. 주현정의 일정이 워낙 바빠 고향 곡성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전화통화만 했다. 이 씨는 "현정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먹으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늦깎이 여공사의 도전은 지금이 끝이 아니다. 이제서야 겨우 출발점에 섰을 뿐이다. 그의 활시위는 벌써부터 4년 뒤 런던을 겨냥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가을 그린' 뜨겁게 달아오른다



신지애



구옥희



박인비

신지애·구옥희 샷 대결

KLPGA 하이원컵 내일 개막

KPGA투어 내일 제주서 열려

'올림픽 방학'동안 긴 휴가에 들어갔던 국내 프로골프대회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른다.

우선 한국여자골프의 전설 구옥희(52·김영주골프)와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하이원컵 SBS 체리티 여자오픈에서 대결을 펼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8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골프장에서 개막하는 대회에서 구옥희, 신지애와 함께 US여자오픈 우승자 박인비(20·SK텔레콤)를 같은 조에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1978년 프로에 데뷔한 구옥희는 국내대회 20승, 국제대회 25승 등 총산 45승을 거둔 한국여자골프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 구옥희가 1980년에 세운 5개 대회 우승과 1979년 10월부터 1981년 6월까지 세운 7개 대회 연속 우승은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대기록으로 남아있다.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구옥희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체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대회를 위해 김영주골프단 소속 선수들과 2박3일간 합숙훈련도 했다. 국내대회 참가는 5년 만이다.

내년 미국 진출에 앞서 국내 삼강왕 3연패를 목표로 삼고 있는 신지애와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주가를 높인 박

인비의 대결은 또 다른 흥미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신지애는 우승 상금 2억원을 양보할 수 없다. 2위 그룹에 2억원 가량 앞서 있지만 이 대회 우승컵을 다른 선수에게 내주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그린이 아직 낮은 박인비에 비해 신지애의 우위가 짐작되지만 해외파는 박인비 한 명이 아니다.

웨그먼스LPGA 우승자 지은희(22·힐라코리아)와 김인경(20·하나금융), 김주미(24·하이마트), 김주연(27), 박희영(21·하나금융), 김승희(20·힐라코리아) 등이 출전한다. 또 각각 2승씩 수확하며 신지애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팔을 걷은 홍란(22·먼시웨어)과 김하늘(20·코오롱)도 여를 휴가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샷을 가다듬었다.

나란히 한차례씩 우승을 차지한 특급 투기 유소연과 최혜용도 언니들을 위협할 실력과 의욕을 갖췄다. SBS골프체널은 28일 오후 3시~5시, 29일 오후 2시10분~4시, 그리고 30일 오후 1시10분~2시에 생중계한다.

남자대회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28일부터 제주 라온골프장(과72·7천186야드)에서 시작되는 SBS코리아투어 조니워커블루리벨오픈은 황인준(34·토마토저축은행)과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의 삼강왕 경쟁으로 뜨겁다. SBS골프체널이 28일 낮 12시~오후 3시, 29일부터 31일 오후 1시~오후 4시 생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Beijing 2008 결산

(3) 명암 갈린 구기종목

야구·핸드볼 감동·환희 만끽

축구 예선 탈락 실망... 남녀 하키도 예상 밖 부진



야구



여자 핸드볼

야구 '금' 확정 지은 공, KBO에 보관

베이징올림픽 야구에서 한국의 금메달이 결정될 당시 1루수 이승엽의 글러브에 들어갔던 공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공은 현재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보관돼 있다.

사연은 이렇다. 당시 9회말 1사 만루의 위기에서 쿠바의 구리엘이 한국 정대현을 상대로 노려친 공은 유격수 박진만, 2루수 고영민, 1루수 이승엽으로 이어지는 병살타가 되면서 경기는 극적으로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

글러브에 공을 넣고 선수들과 환호하던 이승엽은 곧 자신에게 다가온 KBO 관계자에게 공을 건넸다. 경기가 끝나기 전이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우승을 하게 될 경우 KBO측에 건네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잘 기억하고 있었던 이승엽은 환호의 순간에도 공을 글러브에 꼭 쥐고 있었다. 이 공 뿐만이 아니라 준결승전에서 숙적 일본을 물리쳤을 당시 사용했던 야구공 역시 '금빛 야구공'과 함께 현재 KBO가 보관 중이다. 우익수 이용규가 플레이아웃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한참 동안 글러브에 넣고 있던 바로 그 공이다.

두 개의 야구공은 KBO가 보관하다 향후 국내에 야구박물관이 건립되면 영구 전시하게 된다.

한국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따내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가운데 올림픽 후반부를 장식한 구기 종목들은 극명하게 엇갈린 성적으로 대조를 이뤘다.

베이징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사라지는 야구대표팀은 아마추어야구 최강으로 손꼽혀온 쿠바를 물리치고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고 여자 핸드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동메달을 따냈다.

반면 야심차게 메달 도전장을 냈던 축구는 세계의 높은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조별예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고 조심스럽게 메달 희망을 품었던 하키는 남녀 모두 4강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삼켰다.

올림픽 단체 구기 종목으로는 1992년 바르셀로나대회 여자 핸드볼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금메달을 안긴 야구가 단연 돋보였다.

애초 금메달보다는 메달권 진입이 목표를 두고 베이징에 입성한 한국은 미국과 폴란드 첫 경기에서 8-7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거침없는 9연승을 달리며 단거리만족은 세계 어느 팀과 불어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원투 펀치'를 맡아 쿠바와 일본 타선을 차례로 잠재운 선발투수 류현진(화화)과 김광현(SK)은 향후 10년은 한국 마운드를 거뜬히 책임질 예이스로 발돋움했고, 타선의 간판 이승엽(요미우리)은 결정적인 순간 홈런 2방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기대 이상의 투혼을 보여준 야구와 대조적으로 메달권 진입을 호언장담했던 축구는 조별리그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일찌감치 짐을 썼다.

카메룬을 상대로 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 일보 직전에 동점골을 내줘 아쉽게 비긴 대표팀은 이어진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출전 끝에 0-3으로 무너지며 조별리그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올림픽이 아니어도 인기가 유지되는 축구와 달리 비인기 종목의 설움 속에서도 1984년 LA올림픽부터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꾸준히 캐낸 여자 핸드볼은 이번에도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전패의 수모를 당했던 여자 농구는 8강에서 세계 최강 미국을 만나 고배를 마셨지만 1차 목표였던 조별리그 통과를 달성한 것만으로도 만족스런 성과다.

남자 핸드볼은 윤경신(35·두산)과 조치호(38·바림겐)가 노장 투혼을 보였지만 8강 문턱에서 무릎 꿇었고, 동반 4강 진출을 노리던 하키는 남녀 모두 예선전 첫 경기에서 기선을 잡는 데 실패하며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한편 배구는 1964년 도쿄 대회에서 배구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처음으로 남녀 모두 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해 다른 종목들만 발치에서 지켜보는 데 그쳐야 했다.